
부록

1. 손해율과 공동인수규모의 상관관계 분석

가. 분석자료

본 분석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자동차보험 실적자료이며, 동 자료는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회사별 자동차보험 실적자료에는 보험종목별, 담보별 보험료, 보험금 및 사고실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자료를 회사별 경과보험료, 손해액, 공동인수물건 구성비(대인배상II 평균유효대수 기준) 등의 항목을 포함한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자동차보험 산업에서는 회사 간 인수합병 등 회사 소유관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제일화재와 신동아화재의 합병(2009. 12)으로 한화손해보험이 만들어졌으며, AXA는 2012년 에르고 다음을 인수하였고 다시 이를 BNP파리바 카디프에 지분을 넘겼다(2014. 7). 그린화재는 새마을금고에 인수(2013. 5)되고 MG손해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대해상의 자회사였던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다시 모회사에 흡수(2015. 7)되었다.

본 연구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작성기간 중에 발생한 이러한 회사들 사이의 인수합병 결과를 자료정리에 반영하였다. 즉, 2016년 기준 자동차보험산업을 영위하는 회사 기준으로 기존 회사별 실적을 정리하였다. 제일화재와 신동아화재의 실적을 합하여 한화손해보험 실적으로 하고, BNP파리바 카디프가 에르고 다음을 인수한 이후 영업실적이 크지 않고, AXA다이렉트에서 BNP파리바 카디프로 인수된지 얼마되지 않아 AXA, 에르고 다음(BNP파리바 카디프)실적을 모두 합산하였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도 모기

업 현대해상에 흡수되었으므로, 현대하이카다이렉트의 과거 실적을 현대해상 실적과 합산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자료의 변수는 경과보험료(회사규모), 손해율(직전 연도), 공동인수물건구성비(대인배상II 평균유효대수 기준)이다. 다른 자료들은 연도별·회사별 실제자료이지만, 손해율 자료는 회사별 전체손해액을 증권별 경과보험료로 나누어 산출한 값이다. 이외에 사고발생 건수(또는 사고발생률)는 보험회사 인수기준 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지만 사고발생률이 결국 손해율에 반영되고, 보험회사가 자사의 영업실적을 판단하는 최종 변수가 손해율이므로 본 분석에서는 사고발생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공동인수물건 구성비를 대인배상II 기준으로 한 것은 2017년 11월 이전의 ‘공동인수물건 상호협정’에 따라 대인배상II는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담보인 반면 다른 담보(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무보험차 상해)는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담보이므로, 대인배상II 담보가 실질적으로 공동인수대상 물건의 규모를 파악하는 중심 담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부록 표 1〉 통계자료 내용 요약

기준		세부내용
독립 변수	회사규모: Prem	9년간 회사별 경과보험료, 연속형 자료
	직전 연도 손해율: Lraion	9년간 회사별 손해율, 연속형 자료
종속 변수	공동인수물건 규모: Gratio	9년간 회사별 공동인수물건 비율(대인배상II 평균유효대수 기준)
통계기간: Year		2008년 1월~2016년 12월의 연간자료
보험종목		모든 보험종목

분석대상 보험종목 구분은 하지 않았으며, 개인용자동차보험,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업용자동차보험 및 이륜자동차보험을 모두 합산한 실적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모든 보험종목을 합산한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이론적으로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대상 보험종목이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사고율이 높거나 손해율이 높은 영업용자동차보험에서 공동인수대상물건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본 분석의 목적이 손해율과 공동인수물건 규모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므로

보험종목별 구분을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분석 자료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공동인수물건 규모는 평균적으로 약 0.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해율은 약 65.3%, 경과보험료는 약 392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회사별 규모를 나타내는 경과보험료는 표준편차가 약 9,486억 원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형사와 소형사 간의 시장점유율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사로 계약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표준편차의 보험료 규모별 표준편차가 큰 현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반면 손해율과 공동인수물건 규모의 표준편차는 각각 약 5.7%와 약 0.6% 수준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손해율과 공동인수물건 규모는 회사별 차이보다는 시장전체 평균기준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움직이는 성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손해율 표준편차 약 5.7%는 회사의 영업수지 측면을 볼 때 다소 큰 효과가 발생할 수준으로 보이지만,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회사별 자료인 점을 감안하면 심각하게 큰 표준편차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분석대상 회사에 직판회사(AXA와 THE K손해보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직판회사의 예정손해율이 비직판회사 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영업수지 측면에서 표준편차 약 5.7%는 크지 않은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표 2〉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구분	관측 건수	표준편차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
경과보험료(Prem)	96	9486	392	9,842	41,550
손해율(Lratio)	96	0.05747	0.6532	0.7958	0.9652
공동인수물건 규모(Gratio)	96	0.00614	0.0008	0.0069	0.0353

나. 분석모형⁷¹⁾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서 선형혼합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선형혼합효과모형

71) 강기훈·기승도(2011), 「선형혼합효과모형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사고유형별 손해액 탄력성 분석」, 『보험금융연구』, pp. 9~12의 내용을 본 연구에 부합하게 수정 인용하였음

(Linear Mixed Effect Model)은 실험계획법에서 출발하여 개발된 것이다. 선형혼합효과모형은 의학, 공학, 심리학, 경제학 및 경영학 등에서 여러 학문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실험계획법이 필요한 분석에 동 모델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선형혼합효과모형을 이용하면 횡단면자료(Cross-sectional Data)뿐만 아니라 반복 측정된 실험계획자료 및 경제학의 패널자료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기자료(Longitudinal Data)도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장기자료(Longitudinal Data)이며, 연도별, 보험회사별로 손해율에 차이가 있고, 보험회사별 인수기준에 차이가 존재한다. 즉 회사별 확률효과(Random Effect)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의 분석모형으로 선형혼합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선형혼합효과모형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면, (부록. 1)과 같다. 동 식은 선형혼합효과모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부합한 모형이기 때문에 단일수준 그룹모형으로 표시한 것이다.

$$y_i = X_i\beta + Z_i b_i + \epsilon_i, \quad i = 1, \dots, M \quad (\text{부록. 1})$$

$$\text{여기서, } b_i \sim N(\mathbf{0}, \Sigma), \quad \epsilon_i \sim N(0, \sigma^2 I),$$

여기서, β 는 p 차원의 고정효과 벡터이고, b_i 는 q 차원의 확률효과 벡터이며, $X_i(n_i \times p)$ 와 $Z_i(n_i \times q)$ 는 각각 고정효과와 확률효과에 대응되는 회귀행렬(Regressor Matrices)이며, ϵ_i 는 그룹내 오차(Within-group Error) 벡터이다.

(부록. 1)의 모형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는 공동인수물건 구성비 변수(Gratio)를 사용하였고, 고정효과변수(Fixed Effect Variable)로는 직전 연도 손해율(Lratio), 회사규모(Prem) 및 연도를 사용하였다. 확률효과 변수로 사용된 자료는 12개 손해보험회사($i=1, \dots, 12$)의 자료이므로, 회사변수를 확률효과 변수(Random Effect Variable)로 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선형혼합효과모형식(부록. 1)의 모수 값은 EM 알고리즘으로 일반적으로 최대가능도(Maximum Likelihood) 또는 제한최대가능도(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REML)함수를 최대화 하여 추정된다. 선형혼합모형의 추정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Searle et al.(1992), Vonesh·Chinhilli(1996)에 잘 설명되어 있다. 다음에서는 Searle et al.(1992), Vonesh·Chinhilli(1996)이 제시한 ML, REML을 사용하여 선형혼합효과모형의 추정값을 구하는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우선 (부록. 1)의 추정값을 구하기 위해 θ 를 Σ 에 관련된 모수집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고 가능도함수로 나타내면 (부록. 2)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beta, \theta, \sigma^2 | \mathbf{y}) = \prod_{i=1}^M p(\mathbf{y}_i | \beta, \theta, \sigma^2) \\ = \prod_{i=1}^M \int p(\mathbf{y}_i | \mathbf{b}_i, \beta, \sigma^2) p(\mathbf{b}_i | \theta, \sigma^2) d\mathbf{b}_i \quad (\text{부록. 2})$$

여기서 $p(\mathbf{y}_i | \mathbf{b}_i, \beta, \sigma^2) = \frac{\exp(-\|\mathbf{y}_i - \mathbf{X}_i\beta - \mathbf{Z}_i\mathbf{b}_i\|^2/2\sigma^2)}{(2\pi\sigma^2)^{n_i/2}}$ 이고,

$$p(\mathbf{b}_i | \theta, \sigma^2) = \frac{\exp(-\mathbf{b}_i^T \Sigma^{-1} \mathbf{b}_i) (2\pi)^{q/2} \sqrt{|\Sigma|}}{(2\pi\sigma^2)^{q/2} \text{abs} |\Delta|^{-1}},$$

Δ 는 $\frac{\Sigma^{-1}}{1/\sigma^2} = \Delta^T \Delta$ 를 만족하는 행렬이다.

(부록. 2)에 위의 식을 대입하고 계산하면, 다음 (부록. 3)과 같이 되고, (부록. 3)을 최대로 하는 $\hat{\beta}$, $\hat{\theta}$, $\hat{\sigma}^2$ 을 구하는 것이 ML방법으로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L(\beta, \theta, \sigma^2 | \mathbf{y}) = \frac{1}{(2\pi\sigma^2)^{N/2}} \exp\left(-\sum_{i=1}^M \frac{\|\tilde{\mathbf{y}}_i - \tilde{\mathbf{X}}_i\beta - \tilde{\mathbf{Z}}_i\hat{\mathbf{b}}_i\|^2}{2\sigma^2}\right) \prod_{i=1}^M \frac{\text{abs} |\Delta|}{\sqrt{|\tilde{\mathbf{Z}}_i^T \tilde{\mathbf{Z}}_i|}} \quad (\text{부록. 3})$$

여기서,

$$\tilde{\mathbf{y}}_i = \begin{bmatrix} \mathbf{y}_i \\ \mathbf{0} \end{bmatrix}, \tilde{\mathbf{X}}_i = \begin{bmatrix} \mathbf{X}_i \\ \mathbf{0} \end{bmatrix}, \tilde{\mathbf{Z}}_i = \begin{bmatrix} \mathbf{Z}_i \\ \mathbf{0} \end{bmatrix}$$

이고, $\hat{\mathbf{b}}_i = (\mathbf{Z}_i^T \tilde{\mathbf{Z}}_i)^{-1} \tilde{\mathbf{Z}}_i^T (\tilde{\mathbf{y}}_i - \tilde{\mathbf{X}}_i \beta)$ 이다.

그런데 (부록. 3)을 이용하여 모수 $\hat{\beta}$, $\hat{\theta}$, $\hat{\sigma}^2$ 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다. 따라서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부록. 3)을 프로파일링가능도(Profiling Likelihood)로 단순화시켜 구하기도 한다. 최대가능도추정량(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은 고정모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수 추정값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최대가능도방법(REML)이 사용된다. REML 가능도함수 계산, 프로파일링 REML 계산 등 추가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Searle et al.(1992), Vonesh·Chinhilli (1997), Pinheiro·Bates(2000)를 참조하기 바란다.

선형혼합효과모형에서 모수 β , θ , σ^2 의 추정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Newton Method가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동 방법은 어느 위치에서 해를 찾아가는가에 따라 최적해를 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 완화한 방법이 EM 알고리즘이다. 선형혼합효과모형에서 모수의 해를 구하는 방법인 EM 알고리즘과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Pinheiro·Bates(2000)를 참조하기 바란다. 본 논문에서는 공개 통계언어인 R을 이용하여, 특히 Bates 등이 개발한 'lme4' 패키지를 이용하여 앞에서 설명한 선형혼합효과모형의 분석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다. 분석 절차

본 장에서는 선형혼합효과모형을 사용하여 직전 연도 손해율의 증감이 공동인수물건 구성비 증가에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적 선형혼합효과모형을 선택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통계분석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확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룹(회사)별 절편과 기울기의 확률효과를 그림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확률효과변수와 고정효과변수를 설정한 모형에 자료를 적합시켰다. 자료를 적합시킨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본 연구목적에 부합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추가적인 두 가지 통계분석, 모형해석과정을 거쳤다.

첫째는 다양한 모형을 만들어 모형 내 변수들의 설명일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즉, 본 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변수를 포함한 전체모형(Full Model)에서 연도변수를 제

거하여 총 두 개의 모델을 만들었다. 연도변수를 포함시킨 모형과 제외시킨 모형 등 모형을 변화시키더라도 직전 연도 손해율이 공동인수대상물건 구성비에 어떻게 미치는 영향이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았다. 만일 연도변수를 제외하든지 포함시키든지 상관없이 직전 연도 손해율이 공동인수대상물건 구성비에 주는 효과에 큰 변화가 없다면 직전 연도 손해율이 공동인수물건 구성비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라는 것을 일관되게 설명한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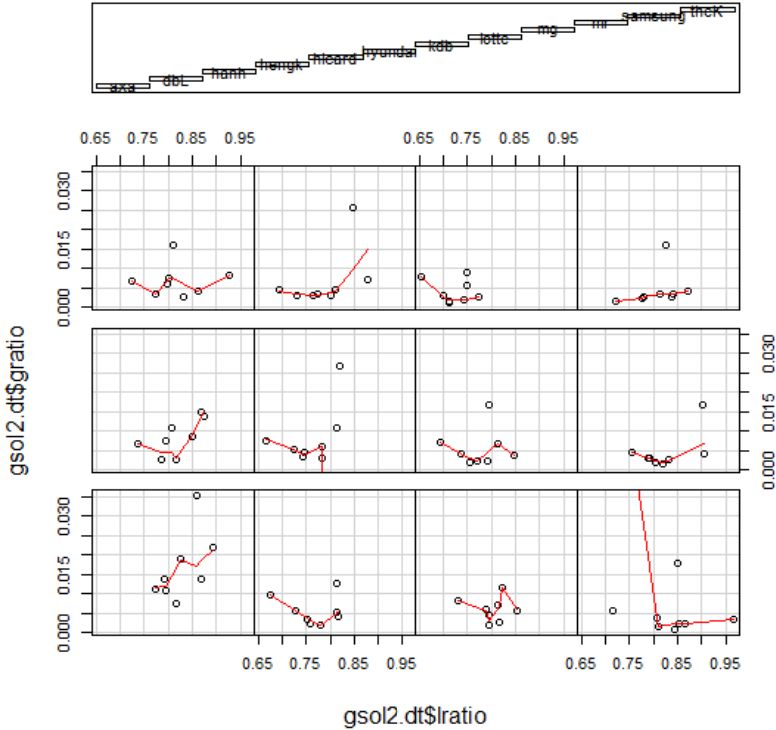
둘째는 앞서 분석한 두 개의 모델을 ANOVA 분석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고, 선택된 모형을 통해 직전 연도 손해율과 공동인수물건 구성비 관계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첫 번째 단계에서 모형 간 비교를 통해 얻은 의미를 재확인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라. 분석 결과

아래 그림에서 손해율의 변화에 따른 공동인수물건 구성비 변화의 관계가 모형의 절편과 기울기에서 회사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그림에 따르면 회사별 확률효과가 존재하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를 확률효과 변수로 설정하는 선형혼합효과모형으로 자료를 분석하면, 독립변수인 직전 연도 손해율과 종속 변수인 공동인수물건 구성비 사이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록 그림 1〉 회사별 손해율과 공동인수물건 규모의 관계

Given : gsol2.dt\$cmp



회사를 확률효과변수로 하고 절편 및 손해율을 고정효과 변수로 한 모형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모형은 공동인수물건 구성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를 포함시킨 모형 이고, 두 번째 모형은 고정효과변수의 설명력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정효과변 수들 중 연도변수를 제거한 제한된 모형이다.

모형 I :

$$y_{ij} = \beta_{00} + \beta_{01}(\text{손해율})_j + \beta_{02}(\text{회사별규모})_j + \beta_{03}(\text{연도})_j + z_{01}(\text{회사})(x_{ij} - \bar{x}_j) + \epsilon_{ij}$$

모형 II :

$$y_{ij} = \beta_{00} + \beta_{01}(\text{손해율})_j + \beta_{02}(\text{회사별규모})_j + z_{01}(\text{회사})(x_{ij} - \bar{x}_j) + \epsilon_{ij}$$

(부록. 4)

두 가지 모형의 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두 가지 모형 모두 직전 연도 손해율이 공동인수물건 규모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모형 중 연도별 변수를 제거한 모형Ⅱ의 경우에는 회사의 규모(경과보험료 크기)가 공동인수대상의 규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전체모형인 모형Ⅰ에서는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공동인수대상물건을 더 많이 인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록 표 3〉 손해율과 불량물건구성비의 관계분석 결과

구분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Ⅰ	모형Ⅱ
	추정계수(표준오차)	추정계수(표준오차)
Intercept	-0.0408(0.0170) *	-0.0299(0.0195)
Lratio(손해율)	0.0395(0.0145) **	0.0343(0.0138) *
Log(Prem) (회사규모, 보험료기준)	0.0009(0.0005) .	0.0005(0.0007)
Year2010	-0.0031(0.0012) *	-
Year2011	-0.0055(0.0020) **	-
Year2012	-0.0045(0.0013) **	-
Year2013	-0.0059(0.0013) ****	-
Year2014	-0.0075(0.0015) ****	-
Year2015	-0.0053(0.0018) **	-
Year2016	0.0068(0.0017) ****	-

주: 1) . 는 10%, *는 5%, **는 1%, ****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동 분석결과는 REML(Restricted Maximum Likelihood)로 산출한 것임

3) 불량물건의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도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연도별 변수를 고정효과변수로 사용함

모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적합한 해석을 하기 위하여 2가지 모형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모형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ANOVA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Ⅰ과 모형Ⅱ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모형 중 더 나은 모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두 모형의 AIC와 BIC 값으로 모형 간 비교를 해보면 모형Ⅰ의 값들이 모형Ⅱ의 값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아 모형Ⅰ이 두 모형 중 더 나은 설명모형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적합한 모형은 모형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표 4〉 2개 모형 비교(ANOVA Test)

구분	Df	AIC	BIC	logLik	deviance	Chisq	Chi Df	유의성
모형Ⅱ	7	-714.37	-696.42	364.19	-728.37	-	-	-
모형Ⅰ	14	-832.91	-797.01	430.45	-860.91	132.54	7	***

따라서 모형Ⅰ에 근거하여 최종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우선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질문인 “직전 연도 손해율 수준이 다음 연도 인수기준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모형Ⅰ에서 직전 연도 손해율 수준은 다음 연도 인수기준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연도 손해율이 높으면 다음 연도 인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동인수물건의 비중이 늘어나고, 손해율이 좋으면 다음 연도 인수기준이 느슨해져서 공동인수물건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험회사가 인수기준을 정할 때의 중요한 판단요인이 자동차보험에서 수익이 나는지 여부에 따른다는 것이고, 그 기준이 손해율이므로 인수기준을 마련하는 연도, 즉 공동인수물건의 규모가 결정되기 전 연도의 손해율이 공동인수물건 규모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Ⅰ 분석결과에서 보험회사의 규모도 공동인수물건의 규모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보험회사 규모가 클수록 그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불량물건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이는 현 공동인수물건 배분 기준이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규모에 비례하여 공동인수물건이 배분되도록 되어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모형Ⅰ에서는 모형Ⅱ와 달리 공동인수물건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간변동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도별 변수를 더미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연도별 기간변수 효과를 제거한 후에도 앞서 분석결과처럼 직전 연도 손해율 수준이 다음 연도 인수기준 설정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도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연도별 변수설정이라는 의미 외에도 연도별 변수 자체 추정값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기준변수를 2009년으로 했을 때의 연도별 공동인수물건규모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 추이를 보면 2012년까지 손해율이 좋았다. 2009년도의 악화된 손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

개선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다음 연도부터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공동인수물건 대상계약의 구성비도 줄어들었는데, 그 결과가 모형 I의 연도별 변수 분석결과에 나타나 있다. 제도 개선 효과로 인하여 공동인수대상물건의 규모가 2013년까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2013년 이후 2014년부터는 공동인수대상물건의 규모가 다시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해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이소양 2018.11
-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1
- 2018-23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18.11
- 2018-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 및 대응 / 김현수·권혁준 2018.11
- 2018-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1
- 2018-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김세중·김유미 2018.11
- 2018-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동향분석실 2018.11
- 2018-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8.12
- 2018-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창희·홍민지 2018.12
- 2018-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8.12
- 2018-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김해식 2018.12
- 2018-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조영현·황인창·이혜은 2018.12

2019-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김범 2019.1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

- 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
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
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
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회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
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 원·채원영·

- 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

- 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역·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 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
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운아·
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
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
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향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2018-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 김세환 2018.12
 2018-3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상우 2018.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제 11 호 201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9.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 KIRI, 2018.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제2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 KIRI, 2018.2
제2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 KIRI, 2018.5
제2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 KIRI, 2018.8
제2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 KIRI, 2018.12
제2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8/ KIRI, 2019.2
제2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 KIRI, 2019.4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 이상우·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2019-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이승준 2019.4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080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3 / lsy@kiri.or.kr)

저 자 약 력

기 승 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계학 박사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 kaebi@kiri.or.kr)

홍 민 지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mjh@kiri.or.kr)

조사보고서 20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발행일 2019년 5월

발행인 안 철 경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9741-10-5 94320

979-11-85691-02-2 (세트)

정가 10,000원